에너지경제연구원
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

에너지정보통계센터

주간 해외에너지정책 동향

Issue 15 / 2008.4.25

□ 프랑스, 에너지안보를 위해 러시아와 협력할 것을 제안

○ 프랑스 수상은 에너지안보를 위하여 나부코 가스관 건설에 러시아와 협력하여, EU 회원국과 러시아의 연대를 강화할 것을 제안함.

- 나부코 가스관은 '12~'13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러시아를 거치지 않고 카스피해에서 유럽으로 가스를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, 유럽의 에너지수입선 다변화 전략의 일환임.

- 동 가스관은 대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나, 러시아는 이에 맞서 이탈리아와 협력하여 South Stream 프로젝트를 진행함.

- 나부코 가스관을 통해 수송될 아제르바이잔 또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공급량이 불충분하여 러시아 및 이란의 가스가 요구되기 때문에, Gazprom과의 협력이 제기되고 있음.

○ 유럽의 에너지안보를 위하여 EU 회원국들은 각국의 국영기업 육성에서 벗어나, 역내 에너지공급업체 간의 연대를 장려해야 함.

- 프랑스는 또한 에너지위기에 대비한 전략적 석유비축시스템 강화를 제안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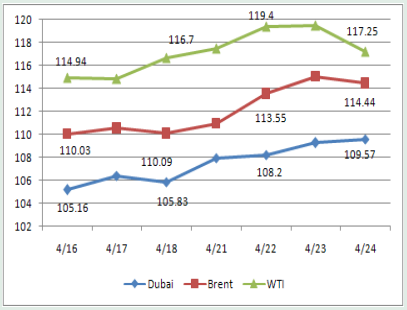
(AFP, 2008.4.21)

NEWS
- 프랑스, 에너지안보를 위해 러시아와 협력할 것을 제안
- 미국, UAE와 원자력협력협정 체결
- 캐나다의 온실가스 배출량 25% 증가
- 터키 첫 원자력발전소 건설
- Dolphin Energy, 6월 오만에 가스공급 시작 예정
- 사우디, 에너지부문 투자확대
- BP, 3년 내에 오만 가스 생산 계획
- Shell의 나이지리아 원유생산량 감소
- PEOP 송유관 건설 착공 예정
- 이탈리아 Enel, 새 정부 출범으로 원자력 사용 확대 희망

ANALYSIS
- 최근 세계 석유재고 동향 - 아시아는 감소세
- '09년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산 천연가스 수입가격의 인상폭 전망
- 독일의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
- 세계 LNG 소비의 증가

REPORT
- 사회, 정치적 위험이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: 나이지리아 사례

Oil Prices (Spot)



ASIA, AMERICA & MIDDLE EAST

□ 미국, UAE와 원자력협력협정 체결

○ 미국과 UAE는 평화적 핵프로그램 협력협정을 체결함.

-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은 동 협정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UAE의 원자력의 보유는 지정학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언급함.
- UAE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칙을 준수하여 핵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감독기구를 설립할 것이며 대량살상무기 금지 등 중동지역에서의 핵무기 확산금지조약을 지지한다고 밝힘.

○ UAE는 최근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전력수요의 급증으로 전력공급을 위한 원자력부문 개발 기구를 설립하기로 하였음.

- 프랑스와 UAE는 또한 '08년 1월에 민간부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.

(Al-Jazeera, 2008.4.21)

□ 캐나다의 온실가스 배출량 25% 증가

○ 캐나다 통계청이 4월 22일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, 캐나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'90~'05년 사이에 25% 증가하였음.

- '05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0%는 에너지생산 및 소비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며, 기준년도 이후 세계 에너지수요의 급등으로 수출용 에너지생산 또한 급증한 것이 그 요인임.
- 캐나다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의 24.4 톤과 비슷하며 독일 12.1 톤 및 영국 10.9 톤, 일본 10.6 톤, 프랑스 9.2 톤에 비해서는 높은 편임.

○ 캐나다는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하여 기준년도 대비 '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%를 감축해야 하는데, 정부는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.

- 정부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, '06년 대비 '20년까지 20% 감축 및 '50년까지 60~70%를 감축할 예정임.

(L'Express, 2008.4.23)

□ 터키 첫 원자력발전소 건설

○ 터키는 '15년 완공을 목표로 총 $100~150억 비용이 소요되는 첫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임.

- 원자로 건설에 참여할 기업의 입찰절차가 이번 달에 시작되어 9월 24에 끝날 예정인데, 현재 4개의 회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9월말까지 약 15개의 회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.

○ 동 원전의 규모는 1,500 MW이며 총 3기의 원자로가 건설될 예정임.

- 이는 터키정부가 2년 전 발표한 총 5,000 MW의 원전 건설계획의 후속 조치로서, 최근 유·가스 가격상승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(KUNA, 2008.4.22)

□ Dolphin Energy, 6월 오만에 가스공급 시작예정

○ UAE의 Dolphin Energy는 '08년 6월 초에 오만으로 일일 약 566만 ㎥ 가스공급을 시작할 예정임.

-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대부분은 Occidental Petroleum이 생산 중인 Mukhaizna 육상유전의 증산에 사용될 것이며, 이는 오만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EOR(원유회수율증진) 프로그램 중 하나임.

○ Dolphin 프로젝트는 카타르 북부유전에서 UAE, 오만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역내 가스 프로젝트 중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임.

- $35억이 투자된 동 프로젝트를 통해 '07년 7월에 카타르 북부유전에서 생산되고 있는 가스를 UAE로 일일 약 5만 6천 ㎥씩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향후 약 9만 ㎥로 확대할 계획임.

- Dolphin 프로젝트 지분구조는 아부다비 국영 투자회사인 Mubadala 社

가 51%, Total, Occidental Petroleum이 각각 24.5%를 보유하고 있음.

(Al-Jazeera, 2008.4.21)

□ 사우디, 에너지부문 투자확대

○ 사우디아라비아, 카타르, UAE, 이란은 중동지역 가스매장량의 약 92%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가스 매장량의 37%에 해당함.

- 세계 최대의 유전인 Ghawar 유전은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, 세계 최대 가스전인 Pars 가스전은 카타르와 이란 사이의 북부유전지역에 위치하고 있음.

○ 사우디아라비아는 생산 및 정제능력 증대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'09년부터 1,250만 b/d를 생산할 계획임.

- '08년 내에 Khursaniyah 유전 50만 b/d, Shaybah 유전과 Nuayyim 유전 30만 b/d, Khurais 유전은 '09년부터 120만 b/d를 생산개시 예정임.

○ Saudi Aramco는 향후 20년 동안 세계 에너지수요가 57%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중 가스수요가 약 2.8조 ㎥에서 63% 증가한 약 4.6조 ㎥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.

- 또한 중동의 석유부문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 구축을 위하여 향후 5년간 $1.9조가 투자될 것이라고 밝힘.

(Al-Eqt, 2008.4.22)

EUROPE & AFRICA

□ BP, 3년 내에 오만 가스 생산 계획

○ BP는 3년 내에 오만에서 일일 849만 ㎥의 가스 생산을 계획하고 있음.

- BP는 매장량이 약 8,496억 ㎥인 가스전개발을 위하여 '08년 1월 오만과 생산분배협정을 체결하였음.

- 오만은 최근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증가한 가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'08년에 11%의 가스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.

○ BP는 오만 가스전의 상업적 생산을 '10년 이후에 시작할 예정이며 '07년에 가스전 개발권을 획득한 바 있음.

(Reuters, 2008.4.21)

□ Shell의 나이지리아 원유생산량 감소

○ 영국과 네덜란드의 합작회사인 Shell Nigeria SPDC는 최근 나이지리아 남부에서 발생한 주요 송유관의 파손으로 인한 원유손실이 16.9만 b/d에 이른다고 발표함.

- 나이지리아의 대표적인 반군세력인 니제르델타 해방운동(MEND)은 Shell의 Bonny 터미널에 원유를 공급하는 송유관을 공격함.
- 동 송유관은 나이지리아의 주요 송유관으로 약 700만 b/d를 수송할 수 있는 규모임.

○ 나이지리아의 원유생산량은 델타 지역의 폭력사태로 인해 '06년 1월 이후 25%가 감소된 250만 b/d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, 이 중 Shell의 생산량은 약 90만 b/d임.

(AFP, 2008.4.22)

□ PEOP 송유관 건설 착공 예정

○ 루마니아·세르비아 및 크로아티아는 PEOP 송유관 건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€35억을 공동 투자할 예정임.

- 루마니아 Conpet 및 Oil Terminal, 세르비아 Transnafta, 크로아티아 Janaf는 45일 이내에 동 프로젝트를 위한 합작회사를 런던에 설립할 것임.
- 동 송유관의 총 연장은 1,360 ㎞이며, 루마니아의 서쪽 항구인 Constanta에서 세르비아·크로아티아 및 슬로베니아를 거쳐 이탈리아의 Trieste 항구까지 연결됨.
- 동 송유관은 이탈리아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석유를 공급하는 Transalpine Pipeline에 연결될 것임.
- 슬로베니아 및 이탈리아도 동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의사를 밝혔으나

이탈리아는 새 정부의 출범으로 이번 계약에는 서명하지 않았으며, 다른 형태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됨.

○ PEOP 프로젝트는 러시아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EU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, 흑해에서 중유럽으로 석유를 수송할 예정임.

(Xinhua, 2008.4.23)

□ 이탈리아 Enel, 새 정부 출범으로 원자력 사용확대 희망

○ 이탈리아 Enel은 에너지자립도 강화를 위하여 Silvio Berlusconi의 새 정부가 원자력 사용을 허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.

- 이탈리아는 체르노빌 원자로 폭발사고 발생 후 '87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건설 중이거나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지 및 폐쇄하기로 한 바 있음.

○ 이탈리아는 대표적인 가스 수입국으로 발전부문의 가스사용 비율은 60%이나, LNG 터미널과 같은 가스 기반시설규모가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빈약한 실정임.

- 전력생산의 대부분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이탈리아의 전력요금은 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임.
- 이탈리아의 에너지자립도 강화와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이 주목되고 있음.

(AFP, 2008.4.21)

1. 최근 세계 석유재고 동향 - 아시아는 감소세

□ 개요

○ '08년 1/4분기 세계 석유 상업재고는 50.18억 배럴로 전기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지역별로는 북미와 유럽이 증가세를 보인 반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남.

□ 세부내용

○ '08년 3월말 세계 총 석유재고의 잠정 집계치는 66.79억 배럴로 전월대비 4천 9백만 배럴 증가하였음.

- OECD 상업재고는 1/4분기에 전기대비 11.6만 b/d 증가하였으며 2월말과 비교해서는 5.1만 b/d 증가함에 따라 재고지속일수도 2월말의 54일에서 54.3일로 소폭 증가함.
- 지역별로는 OECD 아태 지역의 상업재고가 1월의 4.13억 배럴에서 2월 3.86억 배럴로 감소하고 3월에는 3.83억 배럴로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함.
- 특히, 겨울 한파와 일본 원전 문제에 따른 대체효과로 아시아 지역의 석유수요가 증가한 것이 재고감소의 원인임.
- 그러나 OECD 아태 지역은 재고감소에도 불구하고 재고지속일수는 석유수요 증가 둔화에 따라 47일을 유지하였음.
- 반면, 북미와 유럽은 석유수요 감소로 1/4분기 상업재고가 전기대비 각각 14.4만 b/d와 20.8만 b/d 증가함.

○ 중간유분 상업재고의 경우 OECD 지역에서 3월에 총 50만 b/d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월에는 100만 b/d 감소, 1월에는 50만 b/d 증가하여 1/4분기로는 전기대비 100만 b/d 감소하였음.

-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과 난방유 정제마진이 확대됨에 따라 중간유분 수급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나 이러한 중간유분 재고감소는 지역적 편차와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음.

- OECD 국가 전체의 중간유분 재고는 여전히 5년 평균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제가동률 수준이 정상화되면 재고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.

○ 아시아 지역의 석유 상업재고 감소가 두드러지긴 하나 3월까지 해상 원유 운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되는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, 아시아 지역 재고도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.

□ 시사점

○ 올해 석유 선물시장에서 OECD 상업 석유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ackwardation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OECD 지역의 석유 소비감소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.

- '05년에도 backwardation 현상이 있었는데 이는 재고 감소에 따른 것이었음.

※ backwardation: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말하며, 석유선물시장에서는 그 반대인 Contango 현상이 일반적임.

○ 국제유가가 $120/bbl 근처까지 상승하고 있어 석유수요 감소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의 유가 상승이 투기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농후함.

- 따라서 세계 증시와 자산시장 등 여타 투자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기가 국제유가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음.

(Oil Market Intelligence, 2008.4)

2. '09년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산 천연가스 수입가격 인상 전망

□ 개요

○ 러시아는 '09년부터 중앙아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 기준가격에 맞춰 구매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실제 수입가격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$210~250/1,000 ㎥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세부내용

○ '08년 3월 11일, Gazprom과 중앙아시아 3국(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)의 국영 가스회사들은 '09년부터 중앙아시아산 천연가스 판매가격을 유럽 기준 가격에 맞추기로 결정한 바 있음.

- 그러나 당시 중앙아시아산 천연가스 수입가격을 확정하지는 않았음.
-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은 $130/1,000 ㎥('08년 상반기, 하반기는 $150), 우즈베키스탄은 $130(하반기 $160)에 러시아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.

○ 이러한 와중에 4월 10일, 러시아 Lukoil의 고위간부들로부터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구매가격으로 $210/1,000 ㎥가 제안될 것으로 추측됨.

- 4월 15일, Lukoil은 공식성명을 내고 이를 부인하였으나, 타쉬켄트 내에서는 최근 $250/1,000 ㎥의 안에 대한 설이 퍼져있음.
- 우즈베키스탄 내의 소식통에 따르면, 우즈베키스탄산 천연가스 가격은 현재 유럽 기준의 천연가스 판매가격에서 통과료와 Gazprom의 수수료 30%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짐.
-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$210~250/1,000 ㎥에서 결정되는 것에 대해 만족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해서도 동일한 안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됨.

○ 또한 이러한 가격대는 '09년부터 우크라이나에 공급키로 한 가스가격 $300/1,000 ㎥과 러시아 경제개발부의 '09년 유럽 가스 가격 예측치인 $355.5/1,000 ㎥에서 러시아 측 수수료 30%를 제외한 금액과 대략 일치하는 수준임.

- 한편, Gazprom은 유럽 가스 가격을 이보다 낮은 $316/1,000 ㎥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'08년에는 $381/1,000 ㎥의 가격으로 판매하였음.

□ 시사점

○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산 가스에 대해 유럽 기준가격으로 구매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위와 같은 가격결정방식에 의하면 중앙아시아에서 가스전을 개

발한다고 하여도 이익 중 30%는 러시아에 귀속되게 됨.

- 중앙아시아 국가 입장에서는 유럽 기준가격에 못 미치는 판매가격으로 합의된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오른 가격을 받게 되므로 만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.
- 중앙아시아산 천연가스전 개발에 참여하려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보다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러시아를 우회하여 수출하는 노선에 대한 관심과 함께, 특히 우회로가 개설될 가능성이 가장 큰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가스전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(Eurasianet.org, 2008.4.21)

3. 독일의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

□ 개요

○ 독일은 '2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 목표 20%를 달성하기 위하여 풍력 발전량을 증대하고, 제2세대 바이오연료 추출을 위한 정제공장을 건설함.

□ 세부내용

○ 독일 정부는 지난주에 바이오연료 사용목표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는데,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고수하기 위하여 풍력 발전량을 증대하기로 함.

- 수송연료 소비 중 바이오연료의 사용비율은 17%에서 12~13%로 감소하였으나, '20년까지 발전부문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은 현재의 27%에서 30%로 확대키로 함.
- 독일의 풍력은 청정에너지 발전의 2/3를 차지하며, 총 전력수요의 7%를 점유함.
- 재생에너지 사용목표량 달성을 위하여 풍력발전 시설용량을 '07년 22,000 MW에서 '20년까지 2.5배 증가한 55,000 MW로 확대하여야 함.

○ 현재 독일은 풍력발전 투자유인이 낮은 편이며, 동 부문에 대한 정부보

조금은 1 KWh 당 €0.08에서 €0.05로 차츰 감소하는 시스템임.

- 독일 풍력에너지부는 풍력발전 증대를 위하여 보조금의 폭을 €0.096에서 €0.061로 제안하였으며, 정부와 의회는 '08년 상반기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함.

○ 한편, 독일 총리는 Freiberg에 제2세대 바이오연료 정제공장을 건설하였으며, 목재 폐기물을 이용하여 연간 1,800만 리터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함.

- BTL(biomass to liquid)은 에탄올과 달리 자동차엔진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차량 종류에 상관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함.
- 독일자동차산업협회(VDA)는 동 연료의 사용으로 독일이 바이오연료 부문의 선두가 될 것으로 전망함.

○ 그러나 동 공장의 바이오디젤 생산규모는 20만 톤으로 €10억이 투자될 예정인데, 동량의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한 유채재배에 €0.4억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투자가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.

- 동 공장은 시험용으로,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차세대 바이오디젤 개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임.

□ 시사점

○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이오연료가 대두되었으나, 곡물가격 인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증대되고 있음.

- 재생에너지 부문은 초기 투자비용은 높은 편이나 온실가스의 배출 위험이 없어,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.
- 해외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독일의 이와 같은 바이오연료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참고하여 미래 에너지시장에 대한 대비를 다양화해야 할 것임.

(Enviro2B, 2008.4.21; AFP, 2008.4.22)

4. 세계 LNG 소비의 증가

□ 개요

○ 세계 에너지소비는 '30년까지 연간 1.3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LNG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임.

- 세계 LNG 수요는 '07년부터 '30년까지 연간 14~15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'30년에는 5억 톤에 이를 것임.

□ 세부내용

○ '07년 세계 LNG 소비는 1억 7,250만 톤에 달했는데 이는 '06년 대비 약 8% 증가한 수준으로, 미국의 추운 겨울로 인한 난방비증가와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폐쇄가 주요원인으로 작용함.

- 미국과 멕시코의 LNG 소비가 '06년 대비 약 42% 증가하여 1,820만 톤임.
- 아시아 지역이 '06년 대비 약 10% 증가하여 1억 1,220만 톤임.
- 유럽은 약 6% 감소하여 '07년 LNG 소비규모가 약 4,100만 톤임.

○ 미국의 '05년 LNG 수입규모는 약 1,300만 톤이었는데 이 중 대부분은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알제리, 이집트로부터 수입한 것임.

-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LNG 수출규모는 약 940만 톤으로, 미국 전체 LNG 수입의 약 70%를 차지하였음.
- 알제리의 LNG 수출규모는 약 200만 톤으로 미국 전체 LNG 수입의 약 15.4%, 이집트가 약 12%를 차지하였음.

○ 미국의 '07년 LNG 소비는 32%이상 증가하여 '15년에는 미국 LNG 수입규모가 약 9,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.

- 이는 ExxonMobil이 참여하고 있는 카타르 LNG 생산 및 수출 프로젝트로부터 수입예정임.

○ 아시아는 역시 석유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LNG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

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이 세계 LNG 소비 및 수입을 주도하고 있음.

- 일본의 LNG 소비는 '06년 대비 7.6% 상승하여 '07년 6,680만 톤에 이르렀고 이러한 규모는 세계 전체 LNG 소비의 약 39%에 해당함.
- 한국은 일본에 이어 LNG 2위 수입국으로 '07년 약 2,560만 톤을 소비하였으며, 이는 세계 전체 LNG 소비의 약 15%를 차지함.
- 한편, 중국의 LNG 소비는 '06년과 '07년 사이에 300% 이상 증가하였고 인도는 약 40% 증가하였음.

○ 전문가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천연가스 소비가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'04~'30년 사이에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.

- '08년 아시아의 LNG 수요는 작년보다 약 9.3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중국과 인도의 수요증가가 주요 원인임.
- 따라서 중국과 인도는 LNG 수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은 호주와의 장기계약을 통해 '06년 중반 LNG 첫 선적을 한 바 있음.
- 인도 또한 LNG 소비가 증가하여 Shell의 인도지사가 호주와 말레이시아, 오만으로부터 LNG를 수입 하고 있음.

□ 시사점

○ 최근의 유가급등과 환경보호 정책의 영향으로 공급자 중심의 가스 카르텔 형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아·태 LNG 시장에서의 수급불안이 중단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, LNG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LNG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도입경쟁력 강화방안이 필요함.

(Al-Eqt, 2008.4.20)

1. 사회, 정치적 위험이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: 나이지리아 사례

□ 개요

○ 본 연구는 나이지리아에서 활동한 다국적 석유기업의 사례를 통해 사회·정치적 위험(political risk)이 다국적기업 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함.

□ 세부내용

○ 위험은 크게 외생적 위험과 내생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음.

- 위험발생 가능성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외생적 위험분석과는 달리, 내생적 위험분석은 위험과 개별 기업의 행태 및 전략 간의 상호 연관성을 인정함으로서 한 국가 내의 동일 사업부문에서도 개별 기업이 직면하게 될 위험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함.

○ 위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은 정치, 정책, 사회, 거시경제, 자연적 요인에 기인하는데, 이 중 다음과 같은 사회, 정치적 위험요인이 다국적 석유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침.

○ '67년 연방정권과 남동부의 분리주의자 비아프란 정권(regime) 사이의 내전으로 나이지리아 총 석유생산량은 '66년 42만 b/d에서 '68년 14.5만 b/d까지 떨어지는 등 외국기업, 특히 Shell과 SAFRAP(Elf의 전신)에 막대한 생산차질을 가져옴.

- Shell-BP 연합은 나이지리아 석유산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통해 '61년 해상광구 분양에서도 Gulf, Mobil 보다 더 많은 광구를 확보하였으나 수익성이 보장된 육상광구 생산에 주력하였음.
- 그러나 Gulf, Mobil 등 후발 주자는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상광구 생산에 집중함으로써 본토에서 벌어진 시민전쟁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.

○ '70년대 석유산업 국유화, 외국투자기업의 토착화(indigenization) 정책, 세제 변화 등 나이지리아 정부의 정책변화가 있었으나 Shell의 나이지리

아 정부에 대한 영향력은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뿌리 깊으며, 이러한 끈끈한 유대는 타 석유기업에 대한 독보적, 경쟁적 우위를 보장함.

- 특히 Shell과 BP는 국유화로 인한 지분 양도 시 Gulf, Mobil, Texaco 등 미국기업에 비해 유리한 보상기준을 적용받았을 뿐만 아니라 석유세 도입 시에도 그 기준을 크게 완화시킴.
- Shell과 BP의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은 동 기업이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나이지리아 석유산업을 독점하였던 데 기인하며 지금도 Shell의 직원이 정부로 가거나 정부 관료가 Shell로 영입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.

○ 부패는 기업과 정부의 관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기도 하는데, 이는 원유생산 중 국가 지분의 위탁판매 계약인 약정계약(term contract)의 배분에서 잘 나타남.

- 국제투명성기구의 '01년 보고서는 나이지리아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패한 국가로 지목하였음.
- 나이지리아 정부관료 및 주요 기업인과의 인맥을 형성한 Glencore, Addax, Arcadia와 같은 기업은 약정계약 배정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됨.
- Glencore와 Addax, Arcadia는 약정계약의 배분에 있어, 10 내지 15%의 수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'97년에는 총 약정계약의 80%, 물량으로 1.1백만 b/d 수준의 계약을 획득함.

○ 일반적으로 대상 지역의 국경분쟁은 투자 저해 요소이나, 프랑스 Elf와 Total은 오히려 이러한 분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음.

- 두 회사는 '97년 나이지리아 아바차(Abacha)장군 정권과 협정을 맺고 적도기니, 카메룬과의 해상영토 분쟁지역인 바카시반도(Total)와 에캉가(Elf)지역에서 석유탐사 및 시추 투자를 단행함.
- 분쟁지역에 대한 적극적 투자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호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나이지리아 타 지역의 개발권 취득 및 계약 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판단됨.

- 해당 지역의 분쟁 발발 시 프랑스의 잠재적 무력지원 가능성은 프랑스 석유기업에 큰 힘을 실어 주었으며, 이는 미국 및 영국의 경쟁기업에 대한 비교우위를 제공함.

○ '90년대 니저 삼각주와 같은 지역의 정치분쟁으로 인해 다수의 석유회사가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음.

- Shell은 나이지리아 정부를 이용한 시설물의 보호, 인터넷을 통한 국제적 PR, 해당 지역의 학교와 병원 건설 등 가능한 수단을 총 동원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.
- 그러나 Statoil과 BP 연합은 '93년 해당지역 진출 초기부터 지역사회 및 비정부 기구 등과 꾸준한 대화 및 지역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호의적 반응을 이끌어 냄.
- 아직 이러한 시도에 대한 성공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나, Top-down방식의 정치적 접근은 부작용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함.

□ 시사점

○ 해외 자원개발 진출 시 위험요인을 냉정한 시각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.

- 위험요인의 개별 기업에 대한 파급효과는 개별 기업의 능력 및 전략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단순한 국가적 위험만을 고려한 진출 전략은 실제 위험을 과소 또는 과대평가할 수 있음.

○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사회 불안정성의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지역을 노리거나,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기존 네트워크를 유지, 보강할 필요가 있음.

- 특히 정치적 영향력 제고를 위한 노력에 있어, 정권 교체에 따른 위험 회피를 위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인맥조성이 바람직함.
- 현지 합작회사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유력인사 및 정부 관료 영입을 꾸준히 추진한다면, 단순한 교육활동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보다 한 차원 높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(TIBR, Vol. 45, No. 5, 2003)